

# 강진군, 선상낙시대회 연다...지역경제 활력 기대

9~10일 두족류 등 마스터스 대회 6회 대회...경제 효과 4억5천만원 총 상금 2억원 지역상품권 환급 어촌 기반 해양 레저 중심지 도약

국내 최대 규모의 선상낙시대회가 강진에서 열린다. 강진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마량항을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꾀할 계획이다.

4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 '아피스(APIS)컵 두족류 선상낙시대회 파이널 라운드'와 '혼다컵 감성돔 마스터스 챔피언십'이 강진 마량항 일원에서 열린다. 두족류 대회는 9일부터 이틀간 열리며, 감성돔 대회인 혼다컵 챔피언십은 10일 하루 동안 치러진다.

각 부문 1위에게 두족류 1500만원, 감성돔 3000만원의 우승 상금이 수여된다. 감성돔 부문은 30위까지, 두족류 부문은

50위까지 상금이 지급되며, 총 상금 규모가 2억원에 달해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감성돔 마스터스 챔피언십에서는 주 타이틀사, 일본 '혼다'와 후원사, 중국 '화웨이' 임직원들이 초청 선수 자격으로 출전해 대회의 국제적인 성장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선상낙시대회인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는 지난 6월30일 샤크 컴퍼니컵 시범라운드를 시작으로 시마노컵두족류선상낙시대회·8월10일, 해마요팅컵 감성돔선상낙시대회·8월11일, 강진군수배 두족류 선상낙시대회·9월7일, 성진마린컵감성돔낙시대회·9월8일, 시마노컵감성돔낙시대회·10월12~13일 등 총 6회 개최됐다.

6회 대회를 치르며 참가자, 관광객 등 총 9532명이 강진군을 찾았으며 총 4억 5000여만원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강진군은 집계했다.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는 강진군 민

선 8기 60대 프로젝트 중 하나인 '바다낙시 어선 유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어촌 경제를 해양 레저관광 중심 등 3차 산업으로 전환해 획기적인 발전을 이룬다는 전략이다.

군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마량항을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대회기간 동안 마량 놀토수산물시장 운영본부 앞 부스에서는 참가자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강진사랑상품권 이벤트를 열어 마량 일원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최대 5만원까지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강진에서의 소비를 촉진한다.

9일에는 마량 놀토수산물시장에서 폐장 행사와 함께 대회 참가자들이 기부한 문어숙회 시식 행사가 열리며 다양한 경품 이벤트와 수산물 할인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는 특설 무대에서 인기가

수 요요미와 금잔디의 공연이 펼쳐지고 오후 7시에는 고급대교를 배경으로 500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는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어 대회와 함께 마량미항의 아름다움도 즐길 수 있다.

10일은 감성돔과 두족류 부문 시상식과 경품 추첨이 진행된다. 1등 경품으로는 200만원 상당의 '폴리마린' 협찬, 카약이 준비되어 있어 특별한 행운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은 2024 강진 피싱 마스터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30일, 부시리와 방어를 주요 어종으로 하는 '빅게임 챔피언십' 개최도 앞두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 피싱 마스터스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가족들께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며 "대회 참여와 함께 아름다운 미항 마량항과 함께 강진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두루 돌아보시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 가구주택 기초조사 관내 모든 가구 대상

강진군이 오는 8일부터 27일까지 관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

4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국가사업으로 5년 주기로 시행되며 2025년에 진행될 인구주택총조사와 농림어업총조사의 정확한 조사구 설정과 국가 주거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가구원 수, 주택 유형, 주거 형태, 거주지 이전 여부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강진군의 주거 환경과 가구 구조를 상세히 파악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을 통한 전자조사(CAPI)를 도입해 데이터 수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으며 대면조사, 전자조사, 전화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강진군은 이번 조사에 참여할 조사원들에게 11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태블릿 PC 사용법과 CAPI 시스템 활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조사원들이 전자조사 방식을 숙지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마쳤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이번 조사는 통계청이 주관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강진군에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공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해남군, 절임배추 원산지표시 단속 관내 생산시설 700개소 대상

해남군은 김장철을 맞아 11월 말까지 관내 절임배추 생산시설 700개소를 대상으로 배추, 소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명품 해남절임배추'의 명성을 지키고 불량 절임배추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추진하며, 타지역 배추를 해남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외국산 소금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 등에 대한 여부 등 원산지 표시 및 표시방법 적정여부를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절임배추 생산업체 대상 원료관리, 위생관리, 작업환경관리, 작업자관리 등 절임배추 생산자에 대한 위생관리 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태료처분 등의 행정조치 후 내년도 절임배추 보조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김장철을 맞아 타지역 배추가 해남배추로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30일 농관원, 읍면 절임배추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절임배추 부정유통근절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해남절임배추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생산농가 스스로 원산지표시를 준수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절임배추 생산에 노력하고 11월 중순 이후 해남배추로 김장하기 캠페인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제정 강진군, 실질적 도움 제공 나서

강진군은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 복구를 돕기 위해 '강진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주거 시설뿐 아니라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에 이르는 다양한 시설 피해까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재난 이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됐다.

군이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화재로 인해 거주지 및 기반 시설과 같은 주민 생계의 중요한 시설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규정 실현을 위한 일보 전진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진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화재(폭발, 붕괴 등 포함)로 인해 거주지 또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시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되며 소방서의 피해 추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은 피해 주민들이 강진소방서에서 발급받은 화재증명원 등 증빙 서류를 구비해 강진군 각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행정 절차의 복잡함 없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행정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며 "화재 피해 지원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난 2일 무안군 망운면 노을길 일원에서 개최된 '해안 노을길 전국 걷기 마라톤대회'에 전국 동호인 1500명이 참여했다.

무안군 제공

무안 해안 노을길 전국 마라톤대회 성황

지난 2일 무안군 망운면 노을길 일원에서 개최된 '2024 무안 해안 노을길 전국 걷기 및 마라톤대회'가 전국 마라톤 동호인과 군민 등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걷기 좋은 도시 '워커블시티 무안'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스포츠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대회가 열린 노을길 일원은 캠퍼지, 아름다운 해안도로 등을 보유하고 있어 무안의 숨겨진 관광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대회 결과 5km 남자부 송진웅 선수 18분 44초, 5km 여자부 강춘희 선수 24분 7

초, 10km 종합남자부 홍수만 선수 34분 15초, 10km 종합여자부 양경은 선수 39분 7초로 영예의 1위를 안았다.

완주 뒤에는 시상식과 함께 기록을 메달에 새겨주거나 자신의 기록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록인증 포토존을 운영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감독과의 팬 사인회도 진행하여 마라톤 완주의 경험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추억도 선사했다. **무안=김행연 기자**

영암서 아시아 현대 도예전 열린다

도기박물관 등 8일부터

영암군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과 영암도기박물관에서 전국 젊은 예술가 130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현대 도예전 '현대도예, 새로운 지평' 전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아시아 현대 도예전은 2004년 흥익대학교와 일본 아이치현립예술대학 간 교류전으로 시작된 이래, 국내·외 도예계 현황을 진단하고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성장해 왔다.

아시아 현대 도예전의 협력 전시로 열리는 영암군의 이번 전시는 아시아 전역의 작품을 보며 현대 도예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살펴볼 수 있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예술의 시대 교류장이다.

젊은 예술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영암의 한옥과 시유도기 등 풍부한 문화유산과 만나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전국 대학원생과 신진 작가, 교수 등 젊은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인다.

흥익대, 단국대, 동덕여대, 한국전통문화대 등 8개 학교에서 전시에 참여해 작가들이 가지각색으로 해석한 도자 예술을 선보이며 도예 문화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8일 오후 5시에는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1층 중앙홀에서는 전시 참여 작가들을 포함해 헤리티지, 공예, 아트 분야 인사들이 교류하는 커뮤니티파티도 열린다.

이 파티는 9일 오전 10~오후 6시까지,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어진

다. 부대행사로 문화예술 심포지엄, 국제 초청 세미나, 작가 토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9일 가야금산조테마공원에서 '시가라키야끼'로 헤리티지 도시 브랜드에 성공해 활발한 국제 교류를 진행하는 등 국제문화예술 허브로 자리한 시가현 '도예의 숲' 관계자를 초청한 세미나가 진행됐다.

10일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에서는 신진 도예작가 3인이 전통문화유산을 모티브로 진행한 다양한 예술 작업과 활동을 들려주는 '3-spot 토크' 이벤트가 열린다.

전시 기간 영암목재문화체험장과 구림한옥마을에서는 '대한민국한옥문화비엔날레 IN 영암'이 함께 진행된다. 전통문화유산인 한옥을 재해석한 이 행사에는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영암=한교진 기자**



진일보

@jinilbo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inilbo.com